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 12

December 2006

## | 이달의 이슈 |

서울 4대 산업벨트 조성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신 창 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센터장)

## | 경제포커스 |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화  
정 병 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

윤 형 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심층의견조사 |

###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

박 희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지 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자치구경제이슈 |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

정 경 호(금천구청 생활복지국장)

## | 경제동향 |

경기/고용/부동산/금융

## | 부록 |

통계표

# 서울경제

2006.12

## 차 례

<b>이달의 이슈</b>	3	<b>서울 4대 산업벨트 조성을 산업 재도약의 계기로</b> 신창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센터장)
<b>경제포커스</b>	11	<b>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화</b> 정병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41	<b>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b>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b>심층의견조사</b>	50	<b>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b> 박희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지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b>자치구경제이슈</b>	75	<b>「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b> 정경효(금천구청 생활복지국장)
<b>경제동향</b>	89	<b>요 약</b>
	90	<b>경 기</b>
	98	<b>고 용</b>
	107	<b>부동산</b>
	116	<b>금 융</b>
<b>부록</b>	127	<b>통계표</b>

# 서울 4대 산업벨트 조성을 산업 재도약의 계기로



신창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장  
sch@sdi.re.kr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구기관마다 앞 다투어 새해 국가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4%대 초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은행 4.5%, 한국은행, KDI, OECD 4.4%, 삼성경제연구소, IMF 4.3%, 한국경제연구원 4.1% 등이다. 서울경제의 성장률도 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저성장이 경기순환적 요인에 기인하기 보다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걱정이다. 수년째 지속되어 온 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잠재성장률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저성장의 요인으로 내수 유발효과가 떨어지는 국내 산업구조, 기업의 보수적 경영, 정부의 규제지속, 해외소비지출 증가 등을 들고 있다.

서울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억제정책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서울은 전국 연구개발 인력의 30%,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36%,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수 각각 50%, 특허 등록 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서울의 1인당 GRDP는 전국의 5위에 불과하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일본 쓰쿠바대학 지역경제학 박사
- 서울의 산업입지 수요 예측에 따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연구 (2006) 등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산업구조 역시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그 경제의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경제규모는 성장해 왔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제도적 규제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의 산업구조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변화의 큰 추세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등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그 비중이 1986년 30.7%에서 2004년 12.4%로 급감했으며, GRDP 기준으로 1985년 13.3%에서 2005년 6.1%로 반감했다. 건설업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그 비중이 1986년 11.1%에서 2004년 5.6%로 감소했으며, GRDP 기준으로 1985년 10.3%에서 2005년 6.7%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종사자수 비중이 1986년 4.7%에서 2004년 17.1%로 크게 증가했으며, GRDP 기준 역시 1985년 18.8%에서 2005년 25.6%로 증가했다. 금융·보험업은 종사자수 비중이 1986년 5.7%에서 2004년 5.4%로 조금 감소했지만, GRDP 기준으로는 1985년 9.1%에서 2005년 16.1%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의 종사자 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데, 이들 산업의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못한 것이다. 2004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은 종사자수 비중이 각각 12.4%, 20.5%, 10.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반해, GRDP 비중은 각각 6.1%, 13.9%, 3.3%에 불과함이 이를 말해 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서울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지 못해 과거 주력산업 종사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해서 자영업으로 전환된 노동력을 다시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흡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앞의 산업구조 변화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의 주력산업들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서울의 주력산업은 계속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도시형 제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기업의 중추관리·연구개발 부문, 집객형산업 등이 서울의 기반산업이 될 것이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공장용지나 노동력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공장은 서울에서 남아 있을 수 없으나 보다 고도화되고 정보화된 과학기술 실험 성격, 즉 연구개발형 제조업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바이오산업, 생활관련, 환경보전 관련 산업 등도 포함될

것이다. 즉 지식에 기반한 도시형 제조업은 서울의 미래산업으로 위치를 지킬 것이다. 다음은 생산자서비스업으로 사업체를 상대로 광고, 홍보, 기획, 조사, 연구 등을 하는 기획, 컨설팅, 연구개발업 등의 고도 서비스업이다. 이는 지식의 제조업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21세기 서울의 기반산업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와 같은 중추관리기능과 연구개발 부문이 서울에 남게 되면 생산기능이 이전하고 없다 하더라도 서울의 기반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문은 기업의 조직 중 여타의 현업, 수송, 영업 부문에 대한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이러한 고도 기능의 수는 적고, 세계 속의 도시 수는 많아 각 도시에서 이 기능을 쟁취하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도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관광, 컨벤션 등과 같은 집객산업이다. 서울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컨벤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서울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2006년 민선4기 시정운영4개년 계획에서 4대 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서울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에서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바이오/나노산업, 의류패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인쇄출판, 관광문화산업을 지연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민선4기 시정4개년계획에서도 도시 경쟁력 향상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력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종전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특히 디자인산업, 관광, 컨벤션산업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시정4개년 계획에서는 서울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4대 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 계획은 서울의 산업공간을 4대 권역별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산업클러스터란 어느 특정분야에서 상호 관련있는 기업과 기관이 일정지역에 집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때 집적의 구성주체인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 및 각종 지원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신제품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계, 교류, 정보공유 기타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에서는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지역이 노베이션 시스템이 기능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먼저 도심 창의산업벨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도심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방



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디자인, 의류/패션, 귀금속, 인쇄/출판,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집적해 있다. 이러한 산업들이 단순히 집적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지역 내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이노베이션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책과제이다. 도심의 주요 산업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동대문 디자인 클러스터, 상암DMC단지, 여의도·용산 국제업무단지, 도심 인쇄 및 귀금속 클러스터, 충무로 영상 클러스터, 청계천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등이 있다.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첫째 도심 창의산업들의 거점을 조성하여 정보교류, 신기술 교육, 이벤트, 학습, 창업보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 계획으로서 동대문운동장에 디자인 콤플렉스를 건립하고 DMC 단지 내에 문화콘텐츠 집적시설을 유지하여 산업분야별 지원센터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있다. 다음으로 권역 내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디자인 수준을 높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DMC와 도심 부활사업을 연계해서 서울의 도심을 국제적인 창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다음은 서남권 첨단산업벨트 구상이다. 이 지역은 구로, 영등포, 금천, 강서를 포함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곳이다. 주로 기계금속, 전자부품, 기계장비 산업 등이 많이 집적하여 한국의 테크노폴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만 하고 신규기업이 집적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내 산업연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역의 정책과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술적 자산에 신규 첨단 기술을 부가하여 새로운 첨단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기존 기계, 전자 부문에 NT, IT, BT기술을 융합하여 정밀기기, 의료소프트웨어 등의 나노 메카 트로닉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서남권의 주요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일대, 관악 벤처밸리, 영등포·구로·강서·금천의 준공업지역, 마곡 MRC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의 산업 육성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내 산업주체들이 교류하면서 정보교환, 신기술 교육, 경영지원, 창업보육 등을 지원할 지역 거점센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곡MRC, 디지털산업단지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장이적지의 산업적 재이용과 마곡 MRC

개발을 통해 산업공간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부문, 대학의 연구소,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이 지역을 첨단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북 NIT산업벨트 구상이다. 이 지역은 NT, IT, 신약, 인공장기 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NIT 미래산업단지, 성동준공업지역, 홍릉벤처벨리를 핵심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도봉 준공업지역, 강북 메디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한다. 이 지역의 육성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공릉 NIT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벤처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둘째 권역 내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기존 준공업지역을 정비하여 첨단 정보통신, 바이오 산업단지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IT산업벨트이다. 이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산업공간으로서 IT, 컨벤션 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집적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산업클러스터는 테헤란밸리, 포이밸리, 논현로 일대 영화·광고·음반클러스터, 컨벤션시설 집적지, 계획단계에 있는 강동 첨단업무단지, 문정·장지 물류단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육성방향으로는 첫째, 기본적으로는 시장기능에 맡겨두고, 둘째 서울벤처타운을 거점으로 지역 내 기업, 지원기관, 대학, 지자체 등으로 구성하는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상적인 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4대 산업벨트 조성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 자치구,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이 계획의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서울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첫째 권역별 주력산업의 기업, 지원기관, 대학, 지자체 등 관련 주체들이 협력하는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개발된 도시로서 새로운 산업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로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재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22.9km<sup>2</sup>의 준공업지역을 새로운 산업 수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해야 한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수도권인 인구집중과 산업과밀을 억제할 목

적으로 1958년 제정한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업 등 제한에 관한 법률’을 2002년 7월 폐지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산업의 글로벌화로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구도가 수도권 대 해외도시로 바뀌면서 법률 자체의 의의를 상실하였고, 둘째 산업자동화나 로봇화로 공장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셋째 수도권에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를 더욱 이상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 이후 해외로 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한다는 기사를 우리는 심각한 시사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수도권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경쟁도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SDI**